

한국의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Effectiveness Research of Drama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신동인, 조연호
서일대학교 연극과

Dong-In Shin(director7th@hanmail.net), Youn-Ho Cho(Chorok_nabi@naver.com)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보다 효과적인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의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7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최종 19편의 연극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하여 메타분석의 통계프로그램인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2.0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표현력은 가장 강한 효과크기(1.103)를 나타냈고, 자아인식(1.011), 창의력(.858)의 순서대로 강한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사회성은 보통 이상의 효과크기(.672)를 나타냈다 둘째,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조절변수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변수로 나타난 것은 표현력과 창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총 시행횟수”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함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초등학생 | 연극교육 프로그램 | 효과성 | 평균효과크기 | 메타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drama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using method of meta-analysi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master's theses, doctoral dissertations, and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Korea up to July, 2013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As a result, a total of 19 studies were eligible for the inclusion criteria. The mean effect sizes and test for homogeneity of effect size(Q-statistic) were analyzed by using 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2.0.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effect sizes for drama education program were ES=1.103 of self-expression, ES=1.011 of self-esteem, ES= .858 of creativity and ES= .672 of sociality . Second, by analysing the moderate variables of the effect size for drama education program, 'sess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research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keyword : | Meta-analysis | Drama Education | Effect Size | Elementary Students |

* 본 논문은 2012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3년 11월 29일

수정일자 : 2013년 12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2월 31일

교신저자 : 신동인, e-mail : director7th@hanmail.ne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연극이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연극교육’이나 ‘교육연극’이나 하는 용어상의 논란부터 시작해서 교육과 연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존재하고 있다[23]. 반면, 이러한 논쟁에 앞서서 실제적으로 연극과 교육이 밀접한 상생관계를 가져온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의 일로 나타나고 있다. 인류의 역사상 연극이 교육적으로 활용되기 시작된 것은 이미 고대이전부터이며, 연극의 교육적 활용은 그리스 시대부터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27].

한편, 이와 같이 고대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연극교육이 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체계화되어 교육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도 1900년대 이후의 일이며, 정규적인 학교교육에서 연극교육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중반이후의 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1940년대와 1950년대부터 전인교육을 위한 연극교육이 탄생되어 1960년대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과정으로 연극과목이 확산되었으며, 현재 영국과 미국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에서는 연극교육이 정규교과로써 활용되고 있다[30].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의 연극교육론의 수용가능성과 적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는 주로 학교 밖에서 연극을 교육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 안에서 연극교육이 논의된 것은 1997년 개정 공포된 제 7차 교육 과정 때부터이며, 이후 2002년부터 문화관광부가 시행한 ‘연극인 강사 인력풀제’사업에 의해서 학교교육과정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27]. 또한, 2005년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개원하여 예술교육에 관한 제반 사업을 주관하도록 한 결과, 이후 전국 3,157개 학교에서 예술교육이 실시되고 그 중 413개 학교에서 연극교육이 실행되고 있다[9]. 이밖에 한국교육연극학회와 한국연극교육학회도 2002년도에 초·중등학교용 연극교과서를 연구 발간함으로써, 연극교육이 정규교과

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9].

반면, 연극교육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연극교육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인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연구나 보고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연극교육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연극교육의 효과성이 개별 연구들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지만, 효과성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많은 의문점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로, 어떠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효과성 연구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연구들이 서로 다른 대상, 종속변수, 측정도구 및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개별단위로 결과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연구결과들로부터 전체적인 효과성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들이 제시되고 있다[34]. 실제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들에서는 측정도구, 종속변수, 진행방법과 내용들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과연 연극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효과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효과성을 입증한 개별 연구들을 보다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메타분석방법’을 실시하고자 한다. 메타분석방법은 특정영역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많은 개별연구들의 결과를 하나로 종합하는 접근방법으로, 개별연구들의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석법이다[17].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한국에서 실시된 초등학생들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별(표현력, 자아인식, 창의력, 사회성) 평균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이며 <연구문제 2>는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성과(표현력, 자아인식, 창의력, 사회성)는 조절변수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른가?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검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

의 효과성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보다 효과적인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실행방안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과 보급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II. 선행연구의 동향

1.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극교육'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극교육인가 교육연극인가의 용어나 개념상의 문제는 국내외 연극 분야나 교육 분야의 관점과 주장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재 국내의 학교교육 등에서는 연극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31].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교육연극과 연극교육을 거의 유사한 개념이나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연극교육의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는 연극놀이의 기법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연극교육과 교육연극을 검색용어로서 동시에 활용하였으며 이를 구별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무엇을 볼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연극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언어능력, 정서지능, 표현력, 상상력 및 창의력, 사회성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이를 연극교육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31].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나 목표를 과연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통일되거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들에서도 매우 다양한 성과 변수들이 측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Podlozny (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는 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극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약 200 여 편의 개별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극교육 프로그램은 취학아동들의 언어능력(독해, 구술, 작문 등) 향상에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언어능력이라는 성과에는 효과성이 크나, 사회성이나 정서적인 측면, 창의성 등에는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37]. 외국의 여러 개별적인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다양한 성과들이 측정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연극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자아개념, 사회적 기술, 문제행동감소, 또래관계증진 등에 효과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35].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선정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표현력, 자아인식, 창의력, 사회성으로 구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효과성 연구들의 성과를 모두 통합해서 전체효과크기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성과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할 경우에 주관적인 결론 및 연구간의 이질성이 커져서 분석결과와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점 때문이다[32].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표현력은 개별연구에서는 언어표현력, 자기표현력, 말하기 표현력 등의 변수로 측정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아인식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변수로 측정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창의력은 창의성, 창의적 인지능력 등의 변수로 측정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아직까지 국내외 연구에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입증된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즉, 조절변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음의 방법들을 고려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조절변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는 이론 또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방법, 연구물에 제시되어 있는 공통적 변수들을 모두 코딩하여 분석하는 방법, 연구자의 직관, 호기심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방법 등이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고 탐색적인 차원에서 조절변수를 분석해본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직관과 호기심에 근거한 변수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변수로 실험집단의 인원수, 총 시행횟수, 대상자의 학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인원수, 총 시행횟수와 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연극교육 집단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인원수, 시행횟수나 대상자의 학년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천적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도 조절변수로 선택하고 싶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여러 가지 연극놀이를 중심으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특정한 모델이나 모형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토론연구 등이 시도되었으나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어서 대상연구의 사례 수가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메타분석방법은 개별연구의 표집을 종합하여 좀 더 큰 표집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력을 높일 수 있고, 개별연구보다 정확한 효과크기를 측정할 수 있으며 효과성과 관련된 변인간의 관계양상 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32].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들을 메타분석을 하기 위하여, 2013년 7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

문을 검색하였다. 문헌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회전자도서관, KISS, DBPIA를 사용하였으며, “초등학생 혹은 아동”과 “연극교육”, “교육연구”, “효과”등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키워드로 검색된 학위논문 120편과 연구논문 58편중에서도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분석대상을 선별하였다. 즉, 메타분석에서는 이에 사용되는 자료들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설정된 실험연구이어야 하며 연구결과에서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등 유의도수준이 밝혀진 통계적 분석연구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따라[17],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존재하는 논문과 연구결과에 표본수와 통계적 수치가 제시된 논문인 28개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학술지 논문과 중복된 표본을 사용한 학위논문의 경우나 통계수치가 불분명한 논문 등을 제외하는 절차를 거쳐서 총 19개의 논문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 코딩

본 연구에서는 대상논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코딩표를 작성하고 각각의 자료를 논의한 다음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코딩항목으로는 저자명, 출판년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인원, 총 시행횟수, 프로그램 내용, 대상자 학년, 종속변수들의 사전-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설정하여 순서대로 코딩하였다.

3. 자료 분석

메타분석에서는 다양한 연구의 합성을 위해서 비교 가능한 측정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효과크기(effect sizes)지표를 사용한다. 메타분석 시 효과크기는 각 연구마다 계산되고 표본 수에 의해 가중된 이후 전체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평균을 내는 것이다. 효과크기는 이분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에 대해 다른 측정법이 사용된다. 연속형 자료 중 평균을 바탕으로 한 효과크기는 Cohen의 d로 계산된다. 즉, 연구 간의 평균차이를 비교 가능한 값으로 만들기 위해 평균차이를 두 집단의 병합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표준화한 값이다. 그러나 효과크기 d는 샘플사이즈에 의해 영향을 받아 추정의 편견을 포함하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하다. 이를 교정된 d 혹은

Hedges의 g로 부른다. 교정된 d로 변환하는 교정으로 제안된 식은 다음과 같다[17].

$$[공식1] \quad J = 1 - \frac{3}{4df - 1}, \quad g = J \times d$$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의 분석에 있어서 bias가 제거된 효과크기인 Hedges'g를 사용하였다. 모든 연구의 효과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이 가정될 경우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상자의 연령, 개입의 기간, 교육정도, 건강정도 등 연구효과크기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절변수의 탐색을 위해서 랜덤효과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Q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서는 출판편의를 알아보기 위해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서로 대칭을 이루어 편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분석에는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v2.0)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4. 동질성 검증 및 조절변수의 탐색

선행연구결과들의 통합방법인 메타분석방법도 일반적인 통계분석방법의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전체 연구논문들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먼저 실시하게 된다. 동질성 검증은 관찰된 모든 분산이 연구 내 오차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영가설로 하여 이를 검증한다. 분석결과에서 연구결과들이 동질성이 검증된다면, 연구들이 제시한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체 효과크기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종료할 수 있으나, 전체연구들의 동질성 검증이 실패할 경우에는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사정해야 한다[17]. 본 연구에서도 전체연구논문들의 동질성 검증을 먼저 실시하였고, 동질성 검증이 실패할 경우에는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사정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문헌고찰을 통한 종속변수 선정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 중 최종분석에 활용된 논문은 총 19편으로 [표 1]과 같다.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에 활용된 종속변수 중 표현력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논문은 8편이었으며, 자아인식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논문은 7편, 사회성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논문은 6편, 창의력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논문은 4편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개별문헌에 대한 효과크기는 총 19개가 분석되었으며 각 효과크기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경우가 1.827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문헌의 분석

번호	저자	연도	인원 (실험/대조)	총 회 기	프로그램 내용	대상자 학년	종속 변수	Effect Size
1	김린경	2011	28/28	10	Boal 과 Jennings	4학년	자기 표현력	0.668
							자기 효능감	0.669
2	김지성	2004	37/40	8	즉흥극	2학년	자기 표현력	0.823
3	김영숙	2009	30/30	10	연극놀이	5학년	사회성	0.530
4	김현숙	2007	32/32	30	연극놀이	6학년	말하기 불안	0.791
5	박홍재 / 문성환	2010	18/18	8	로봇 연극	6학년	창의성	0.167
6	백성희	2000	38/37	7	연극놀이	3학년	교우간 친밀감	.880
7	송리나	2011	29/29	14	연극놀이	5학년	자기 존중감	1.547
8	송영주	2010	29/113	13	진로 교육 연극	5학년	자아 인식	.687
9	이기호	2006	40/40	34	연극놀이	3학년	말하기 표현력	.784
10	이형선	2012	20/20	10	연극놀이	2학년	자기 표현력	.522
							사회성	.665
11	장이화	2003	42/41	10	연극놀이	6학년	자아 개념	.623
							사회성	.636
12	조경애	2006	30/30	18	연극놀이	2학년	창의적 인지능력	1.202
13	조희성	2012	24/24	14	연극놀이	3학년	자아 존중감	.929

14	최정혜	2009	30/30	14	Boal/Jennings	6학년	창의적 인지능력	.951
							자기 표현력	.643
15	황재민	2003	42/41	10	연극놀이	6학년	자아 개념	.871
							사회성	.636
16	유혜선	2001	37/38	12	연극놀이	1학년	창의력	.978
17	김지영	2005	38/38	30	연극놀이	6학년	사회성	.671
18	이정연	2011	28/28	20	연극놀이	1학년	자기 효능감	1.097
							언어 표현력	1.827
19	김민자	2003	26/26	10	연극놀이	2학년	언어 표현력	1.682

2. 주요 성과별 효과크기 및 동질성검증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주요 성과인 표현력, 자아인식, 사회성, 창의력을 [표 2]와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랜덤효과모형에 따라 표현력의 효과크기가 1.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아인식이 1.011, 창의력이 .858, 사회성이 0.672로 나타났다. Cohen(34)의 효과크기 해석기준에 따라 $ES \geq 0.80$ 을 큰 효과크기, $ES \geq 0.50$ 을 중간 효과크기로 볼 때 표현력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으며, 자아인식과 창의력도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다만, 사회성은 보통 이상의 효과크기로 나타나서 성과변수 중 가장 적은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평균효과크기는 모두 대상자인 초등학생들이 자기 보고한 척도검사에 의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의 내적타당성 확보를 위해 출판편의를 살펴본 결과 각 퍼널 플롯(Funnel plot)은 대칭을 이루고 있었으며 Rosenthal 안전계수(failsafe) N이 150개, 132개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현력, 자아인식, 창의력, 사회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각 $Q=23.988$, $Q=11.404$, $Q=6.109$, $Q=1.083$ 으로 $P<.01$ 수준에서 연구 내 효과크기가 동질적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각 종속변수별로 어떠한 조절변수에 따라 연구간 효과크기가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절변수를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직관과 호기심에 근거한 변수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실험집단의 인원수, 총 시행횟수, 대상자의 학년 등을 선정하였다.

표 2. 표현력, 자아인식, 창의력, 사회성의 효과크기와 동질성 검증

구분	연구 물수	Hedges'g	Q	df	p
표현력	8	1.103	23.988	7	.000
자아인식	7	1.011	11.404	6	.000
창의력	4	.858	6.109	3	.000
사회성	6	.672	1.083	5	.000

3. 조절변수 분석

1) 표현력에 대한 조절변수

연극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표현력이 연속형 조절변수인 '실험집단의 인원수' 및 '총 시행횟수, '대상자의 학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그 결과 총 시행횟수는 정(+)방향의 기울기를 나타내었으며, $\beta=0.04890(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총 시행횟수의 단위가 1회기이므로, 회기의 수가 1회 늘어나면 효과크기가 0.0489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나머지 두 변수(실험집단의 인원수, 대상자의 학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표현력의 연속형 조절변수 메타회귀분석

구분	β	SE	Z	P
총 시행횟수	0.04890	0.01827	2.67	0.00744**
절편	0.41374	0.28070	1.47398	0.14049
MODEL	Q=7.16235**			

2) 자아인식, 사회성에 대한 조절변수

연극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자아인식, 사회성이 연속형 조절변수인 '실험집단의 인원수' 및 '총 시행횟수', '대상자의 학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떠한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창의력에 대한 조절변수

연극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창의력이 연속형 조절변수인 ‘실험집단의 인원수’ 및 ‘총 시행횟수’, ‘대상자의 학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총 회기는 정(+)방향의 기울기를 나타내었으며, $\beta=0.09107$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총 시행횟수의 단위가 1회기이므로, 회기의 수가 1회 늘어나면 효과크기가 0.09107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나머지 두 변수(실험집단 인원수, 대상자의 학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창의성의 연속형 조절변수 메타회귀분석

구분	β	SE	Z	P
총 시행 횟수	0.09107	0.04198	2.16943	0.03005*
절편	-0.32546	0.57518	-0.56584	0.57151
MODEL	Q=4.70644*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메타분석을 위해 2013년 7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검색·수집하였다. 최종 선정된 19개 분석연구물에서 성과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력, 자아인식, 창의력, 사회성을 선택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은 ‘국내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별 평균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이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는 표현력이 1.103, 자아인식이 1.011, 창의력이 0.858, 사회성이 0.672인 것으로 나타났다. Cohen[34]의 기준에 비추어 ‘표현력’과 ‘자아인식’, ‘창의력’은 강한 효과크기를 나타내었으며 ‘사회성’은 보통 이상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에서 실시한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들이 표현력, 자아인식, 창의력과 사회성의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통합적인 관점에

서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러 국내의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8][31][35-37].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및 목표로서 표현력, 자아인식, 창의력과 사회성 등을 설정하고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을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문제 2는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는 조절변수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른가?”이었다. 연구문제 2의 입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조절변수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현력’과 ‘창의력’의 경우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총 시행횟수’가 길수록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 표현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총 시행횟수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연구들에서 나타난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효과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한, 표현력과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총 시행횟수’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들이 프로그램 대상자의 특성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한 효과의 차이 등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들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연구에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메타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러 연구에서 연극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에게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성과로 활용한 변수들은 한정적이었고 분석연구의 수도 작았다는 측면이 있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의 연극교육 효과성 연구들이

한정된 성과나 변수를 측정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성과변수들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입증해 나아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학년이나 실험집단의 인원 등 여러 조절변수들이 성과들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향후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조절변수로 고려해 보아야 할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정된 연구에서 진행자의 특성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조절변수로 선택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었다. 향후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연구에서는 진행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연구에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연극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대부분 교육대학원으로 한정되고 있는 만큼 연극분야나 보다 다양한 전공과 자격, 특성 등을 갖춘 진행자들이 연극교육의 효과성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김금자, 연극놀이 수업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언어이해력 및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 김린경, 교육연극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표현력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 김지성, 교육연극을 활용한 말하기 학습이 초등학생의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 김영숙, 교육연극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발표불안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5] 김지영, "교육연극수업이 사회성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학연구, Vol.12, No.1, pp.47-60, 2005.

[6] 김지순, 교육연극이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4.

[7] 김현숙, 교육연극 활동이 말하기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8] 고경화, 예술교육의 역사와 이론, 서울: 학지사, pp.47-48, 2005.

[9]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문화 예술교육 정책백서, 2008.

[10] 박미리, "연극교육의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18권, pp.224-254, 2003.

[11] 박홍제, 문성환, "아동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로봇 교육연극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3권, 제2호, pp.159-181, 2010.

[12] 백성희, 연극놀이수업이 초등학교 아동의 교우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3] 송리나,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단위 격려 중심 연극놀이 기법 프로그램개발과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4] 송영극, 초등학교 5학년의 진로교육을 위한 연극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5] 이기호, 교육연극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초등학생의 말하기 능력 신장,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6] 우혜선, 연극놀이를 통한 말하기 수업이 아동의 창의력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오성삼,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7.

[18] 오형정, 교육연극을 활용한 말하기 학습이 초등학생의 자기표현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9] 이형선, 교육연극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0] 장이화, *교육연극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1] 정계숙, 윤갑정, “교육연극을 적용한 또래관계 프로그램의 아동간 상호작용 증진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Vol.8, No.2, 2006.

[22] 조정애, *교육연극 활동수업이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3] 조병진, “연극의 교육적 활용: 그 가능성과 방향”, 문화교육학 No.2, pp.119-142, 1998.

[24] 조희성, *연극놀이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5] 최정혜, *교육연극 활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창의성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6] 최지영, 김지옥, *DIE*, 2008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연극분야 하반기 강사연수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p.43-61, 2008.

[27] 한명구, *한국 중등학교 연극교육 및 연극교과서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8] 한상덕, “연극 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아동교육, 제6권, 제2호, pp.32-50, 1997.

[29] 한유진, 장진부, “국내 연극치료의 연구동향-국내 학회지와 학위논문중심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Vol.4, No.2, pp.79-99, 2009.

[30] 허순자, “영 미 초 중등학교에서의 연극교육과 교육연극”, 연극교육연구, pp.235-251.

[31] 황정현외, *연극분야(초등) 교수지침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

[32] 홍세희, “행동과학 연구 메타분석의 적용”, 제 11 회 사회복지전문가를 위한 연구방법론 워크샵, 중부재단, 2012.

[33] 홍종관, *교육연극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4]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35] L. A. Guli, *The Effects of Creative Drama-Based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Deficits in Social Perception*. Doctor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4.

[36] G. D. Freeman, K. Sullivan, and C. R. Fulton, “Effects of Creative drama on self-concept, soci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96, 2003.

[37] A. Podlozny, “Strengthening Verbal Skills through the Use of Classroom Drama: A Clear Link,”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Vol.34, 2000.

저 자 소 개

신 동 인(Dong-In Shin)

정회원



- 2010년 :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서일대학교 연극과 부교수

<관심분야> : 연극연출, 연극교육, 연기교육

조 연 호(Youn-Ho Cho)

정회원



- 2013년 :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석사)
- 2008년 3월 ~ 현재 : 서일대학교 연극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연기, 연극교육, 연기교육